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정 현 희¹⁾

동의대학교 아동·가정환경학과

정 순 화²⁾

동덕여자대학교 여성사회교육원

본 연구는 성별을 중심으로 아동의 문제행동과 그 관련변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322명으로, 아동을 대상으로는 기질,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력과 문제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는 양육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은 t검증, Pearson 상관계수 및 중다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 아동의 기질(정서성),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력, 문제행동(불안행동과 산만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의 기질,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기질,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남아의 공격행동, 불안행동, 산만행동과 여아의 공격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은 남아의 공격행동에 대해서는 29%, 불안행동 27%, 산만행동 22%로, 여아의 공격행동에 대해서는 24%로 나타났다.

주요어 : 기질,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력, 양육행동, 문제행동

* 본 연구는 2004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 연구비로 수행되었음.

1) 동의대학교 아동·가정환경학과 교수, E-mail : hhjeong@deu.ac.kr

2) 교신저자 : 정순화, 동덕여자대학교 여성사회교육원 교수, E-mail : jshwa818@hanmail.net

I. 서 론

아동기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따른 문제, 다른 아동들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으로 인한 또래 문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및 학습문제 등 사회·정서적 어려움 등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기이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규칙과 규율을 충족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아동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성장한 이후에도 많은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아동기는 넓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여러 유형의 다양한 행동들을 접하고 습득하는 시기이며, 실제로 이들 행동들은 적응 여하에 따라 긍정적인 행동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행동으로 발전되기도 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정서나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행동은 아동의 연령이나 사회문화적 규범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Kauffman, 1993),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타고난 유전적 성향을 강조하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성장과정을 통해 습득하는 경험요인을 강조하는 관점도 있다. 또한 Kauffman(1993)은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을 생물학적 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문화적 요인의 네 범주로 분류하였다. 학자에 따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분류기준은 상이하지만 이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기질(최영희, 1990; 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 자아통제력(곽금주·문은영, 1995; 이경주·신효식, 1997; Eisenberg et al., 1993), 부모의 양육행동

(이선경·이재연, 1998; 이경주·신효식, 1998) 등을 들 수 있고, 최근 감각추구성향(정현희·오미경, 2000)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질과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동장애를 보이는 유아들은 영아기부터 일반 유아들과 다른 기질적 특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영희, 1990). 양육자는 출생 직후부터 영아가 보이는 생리적 주기의 불규칙성, 낮은 것에 대한 위축, 적응의 어려움, 부정적인 기분, 정서 표현의 격렬함 등의 특성을 다루기 힘든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여기며(Hubert & Wachs, 1985), 까다로운 기질로 분류된 영아가 다른 기질의 영아에 비해 보다 많은 문제행동을 보였다(Garrison, Earls, & Kindel, 1984).

그러나 영·유아기의 까다로운 기질 특성이 모든 연령에서 까다로운 특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의집중력과 지구력의 부족이 영아기에는 까다로운 기질로 여겨지지 않으나, 유아기의 문제행동과는 관련이 있으며, 특히 남아에게는 새로운 상황에서의 위축성, 여아에게는 행동의 느낌이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었다(Caspi & Silva, 1995).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부정적 정서성이 높고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아동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보이며(Eisenberg et al., 1993), 만족지연이나 차례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정서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였다(Rubin et al., 1991). 또 학동기에는 인지능력이나 학업성취가 중요한 발달 측면이므로 지구력, 주의집중, 적응성이 중요시되는 기질요인이다(Martin, Nagle, & Paget, 1983). 또한 기질은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활동수준에서는 남아가, 규칙성에서는 여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서수경,

1993), 적응력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낮고 (Hughes, Pinkerton, & Plewis, 1979),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Ladd & Prie, 1987)고 한다.

이처럼 기질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기질이 선천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나(김민희, 1998), 기질의 안정성 여부는 물론, 기질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발달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연령을 확대해서 두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질과 아울러 감각추구성향은 청소년비행이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감각추구성향은 신기하고 강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생물학적 특성으로 이러한 경험을 위해 신체적·사회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Zuckerman, 1979). 이는 청소년기에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연구결과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새로운 자극이나 보다 강한 자극을 위해 위험한 활동이나 비행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높아 다양한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오미경, 1997).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흡연(Zuckerman, Ball & Black, 1990), 음주운전(Arnett, 1991), 범죄(Howath & Zuckerman, 1993)나 도박행위(Zuckerman, 1974)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감각추구성향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정현희와 오미경(2000)의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감각추구성향이 청소년기에 가장 우세

하게 나타나는 특성이기는 하지만 생물학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이전의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이전 시기에서의 적절한 개입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감각추구성향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아통제력은 주로 임상에서 연구되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변인으로 적극적 활용되고 있는 변인이다. 자아통제력은 계속되는 외부 자극에 대한 내적 정서, 생리 반응에 대한 주의력과 행동반응(Eisenberg et al., 1993), 반응을 촉진하거나 억압하는 행동능력(Denryberry & Rothbart, 1988), 주의집중, 사건에 대한 대처, 상황적 요구에 대한 조절(Eisenberg & Fabes, 1992)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자아통제력과 문제행동과의 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문제행동 관련변인에 대한 이론적 구성과 더불어 자아통제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행동의 예방적 차원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주요한 변인이다. 아동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논의하는데 있어 부모 중에서도 특히 주 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와 영아가 출생초기에 형성하게 되는 애착관계는 이후 아동의 사회성발달이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강차연, 1999),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김선희, 2000)는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성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유도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타고난 특

성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동의 문제행동이 보다 많이 발생하고(김선희·김경연, 1999),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Jenkins & Smith, 199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문제행동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의 탐색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변인들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동기의 문제행동이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미치는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감안해 볼 때, 조기에 문제행동을 차단하고 중재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시에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과 관련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통합된 시각을 갖기 위해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남아의 낮은 적응성, 높은 반응강도는 남아의 불안행동과 상관이 있으며, 여아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기분이 부적응 행동과 상관이 있는(Wolfson, Fields & Rose, 1987)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는 감각추구성향으로 공격행동과 산만행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나, 남아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제력도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외부 자극에 대한 주의집중력에 있어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산만하며(Eisenberg et al. 1993; Miller, Palkes, Stewart, 1973), 더 충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ubin & Fisher, 1983).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도 남아는 어머니의 거부·제한적 태도와 위축행동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반면, 여

아는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태도와 문제행동간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현희·오미경, 2000). 성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공격행동은 남아에게 더 많이 나타나, 불안은 여아가 더 높게 나타난다(김정택, 1998)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여아는 두려움과 걱정을 많이 보이는 반면 남아는 과잉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희, 1998)고 한다. 그러므로 문제행동에서 보이는 성별의 차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가운데 아동의 기질,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 및 그 설명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진술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기질,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기질,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력, 어머니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는가?

셋째, 아동의 기질,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력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 소재 10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의 표집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170(52.8)	아버지 직업	기술,서비스	58(18.1)
	여	152(47.2)		자영	74(22.8)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이하	136(42.2)		회사,공무원	122(37.9)
	전문대이하	58(18.1)		전문, 관리	68(21.2)
	대학이상	128(39.7)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이하	155(48.2)	수입 정도	150만미만	54(16.6)
	대학중퇴	63(19.6)		150-200	61(19.0)
	대학이상	104(32.2)		200-250	67(20.8)
어머니 직업유무	무	141(43.8)		250-300	76(23.7)
	유	181(56.2)		300만이상	64(19.9)

에서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편중되지 않도록 부산 시내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진구, 사상구의 5개 지역에서 각각 초등학교 2개교씩 유의표집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측정도구

기질

아동의 기질 측정은 Buss와 Plomin(1984)의 기질 척도를 변안한 한세영(1996)의 기질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서성 7문항, 활동성 5문항, 사회성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성은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격렬하게 내는 특성을 말하며,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활동성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성격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며, 격렬한 활동을 보이는 특성이다. 사회성은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고

적인 특성, 사회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채점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다루기 쉬운 기질이다. 정서성에서 높은 점수는 기분의 변화가 적고 환경으로부터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활동성에서의 높은 점수는 차분하게 정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는 사회성 .69, 정서성 .73, 활동성은 .76으로 나타났다.

감각추구성향

아동의 감각추구성향은 Zuckerman(1994)의 감각추구척도(Sensation Seeking Scale: SSS)를 바탕으로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나는 만약 무료로 달이나 다른 별에 가 볼 수 있다면 가보고 싶다’, ‘나는 긴 줄을 기다려야 한다면 참을 수 없다’, ‘나는 놀이 공원에서 청

통열차나 바이킹 같은 스틸 있는 탈것을 좋아한다', '부드럽고 조용한 음악보다는 활발한 음악을 크게 듣는 것이 좋다'와 같이 신기하고 강한 감각을 추구하려는 욕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감각추구성향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4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감각추구성향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계수는 .72로 나타났다.

자아통제력

아동의 자아통제력 검사는 Kendall과 Wilcox (1979)의 자아통제력 검사(Self-Control Rating Scale: SCRS)를 수정 보완한 이순규(1994)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측정도구의 특징은 충동, 인지, 행동을 개념화시킨 점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총점으로 자아통제력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이론적 구성에 근거하여 충동통제, 인지통제, 행동통제의 3요인으로 분석을 하였다.

자아통제를 할 수 있는 아동이란 충동적이지 않고, 신중하며, 인지면에서는 문제해결을 잘하고, 계획 및 종합, 평가하는 능력을 지닌 아동이다. 그리고 행동면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에 참여하며, 그렇지 않은 행동은 억제하는 아동이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충동통제의 Cronbach α 계수는 .82, 인지통제는 .79, 행동통제는 .84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로는 박영애(199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Schaefer의 차원론적 개념체계 및 하위

척도를 기초로 하여 국내외의 양육척도 문항들을 통합하여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제작된 척도로서,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온정·수용이 .87, 거부·제재는 .82, 허용·방임이 .77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 측정은 Achenbach와 Quay의 질문지를 근거로 한 김혜련(1993)의 측정도구를 평가방법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김혜련의 측정도구는 아동평정용으로, 채점은 '예', '아니오'의 선택으로 되어 있다. 긍정적인 내용의 진술 문항인 경우 응답이 "예"일 때 1점을 "아니오"일 때 0점을 주었으며, 부정적인 내용의 진술문항인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채점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4점 리커트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문제행동은 공격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산만행동, 퇴행행동의 5개 요인으로, 각 요인마다 10개의 문항 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 α 계수는 공격행동이 .82, 불안행동 .79, 위축행동 .76, 산만행동 .81, 퇴행행동 .64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는 2003년 5월 첫주부터 5월 셋째주 사이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담임 선생님께 설명한 후 아동용 질문지를 실시하고,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

어머니에게 배부되었다.

자료분석으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를 사용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라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관련변인들의 차이, 이들 변인(아동의 기질,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력, 어머니

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관련변인들의 차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의 기질,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력,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아동의 기질(정서성),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 양육행동(허용방임), 문제행동(불안, 산만)에서 유의한 차

표 2.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관련변인의 차이

변인		남아		여아		t
		M	SD	M	SD	
기질	사회성	3.43	.79	3.52	.59	1.56
	정서성	3.02	.69	3.59	.72	4.60*
	활동성	3.36	.71	3.41	.61	1.01
감각추구성향		3.69	.59	3.01	.75	7.12**
자아통제	충동통제	3.12	.91	3.82	.89	5.01**
	인지통제	3.02	.61	3.80	.81	12.08***
	행동통제	3.34	.78	3.91	.71	5.56**
양육행동	온정수용	4.01	.65	3.82	.56	.74
	거부제재	3.43	.61	3.33	.69	.62
	허용방임	3.36	.73	4.09	.84	6.67**
문제행동	공격	3.39	.62	3.42	.69	.37
	불안	3.03	.59	3.63	.62	8.92**
	위축	2.94	.61	2.85	.59	.56
	산만	3.75	.71	3.04	.63	10.02***
	퇴행	3.01	.60	3.13	.71	1.89

* p< .05, ** p< .01, *** p< .001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및 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기질에서

여아(M=3.59)의 정서성 점수는 남아(M=3.02)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감각추구성향에서는 남아(M=3.69)가 여아(M=3.01)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아보다 여아가 기분에서의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이며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기하고 강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감각추구성향은 여아보다 남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아통제의 세 영역 모두에서 여아(충동통제; M=3.82, 인지통제; M=3.80, 행동통제; M=3.91)는 남아(충동통제; M=3.12, 인지통제; M=3.02, 행동통제; M=3.34)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양육행동에서는 허용방임에서만 여아(M=4.09)가 남아(M=3.36)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남아보다 여아가 전반적인 자아통제력 수준이 더 높고,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허용방임적인 양육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제행동 가운데 불안행동에서는 남아(M=3.03)보다 여아(M=3.63)가, 산만행동에서는 여아(M=3.04)보다 남아(M=3.75)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불안수준은 남아보다 여아가 높은 반면 산만함의 정도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기질,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상관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성별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고 문제행동과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련변인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를 남녀의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기질,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 양육행동(온정수용, 거부제재)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기질 가운데 사회성은 공격, 불안, 위축, 퇴행행동과, 정서성은 공격, 불안, 퇴행행동과, 활동성은 공격, 불안, 위축, 산만행동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추구성향 점수는 공격, 위축, 산만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제에서 충동통제 점수는 공격, 불안, 산만, 퇴행행동과, 인지통제 점수는 공격, 산만, 퇴행행동과, 행동통제 점수는 모든 영역의 문제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에서는 온정수용은 공격, 불안, 위축행동과, 거부제재는 모든 영역의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기질에서 사회성은 공격, 불안, 위축행동과, 정서성은 공격, 불안, 퇴행, 위축행동과, 활동성은 공격, 불안, 위축, 산만, 퇴행의 모든 문제행동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추구성향은 남아와 동일하게 공격, 위축, 산만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제에서 충동통제 점수는 공격, 불안, 산만행동과, 인지통제 점수는 남아와 동일하게 공격, 산만, 퇴행행동과, 행동통제 점수도 남아와 동일하게 모든 영역의 문제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육행동은 남아와는 달리 거부제재만이 공격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남아와 여아가 공통적으로 기질에서 사회성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이나 불안, 위축행동은 감소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적일수록 공격, 불안, 퇴행행동은 감소하며,

표 3. 문제행동 관련변인과 문제행동간의 상관

		문 제 행 동				
		공격	불안	위축	산만	퇴행
기질	사회성	-.21** (-.19**)	-.19** (-.20**)	-.23** (-.18**)	-.07 (-.10)	-.23** (-.14)
	정서성	-.19** (-.24***)	-.19** (-.28***)	-.14 (-.18**)	-.13 (-.13)	-.18** (-.19**)
	활동성	-.24*** (-.19**)	-.17 (-.20**)	-.16* (-.19**)	-.24*** (-.16*)	-.14 (-.20**)
감각추구성향		.31*** (.23*)	.13 (.09)	.19** (.21*)	.28*** (.23***)	.11 (.09)
자아통제	충동통제	-.24*** (-.18**)	-.18* (-.19**)	-.11 (-.11)	-.32*** (-.27***)	-.21** (-.10)
	인지통제	-.22** (-.28**)	-.14 (-.13)	-.12 (-.09)	-.29*** (-.32***)	-.19** (-.21**)
	행동통제	-.32*** (-.29***)	-.18** (-.17*)	-.19** (-.23**)	-.29*** (-.19**)	-.22** (-.20**)
양육행동	온정수용	-.21** (-.09)	-.19** (-.14)	-.17* (-.11)	-.10 (-.06)	-.06 (-.07)
	거부제재	.16* (.26**)	.18** (.14)	.21** (.12)	.22** (.09)	.16 (.10)
	허용방임	.11 (.07)	.11 (.09)	.08 (.09)	.06 (.11)	.05 (.02)

* $p < .05$, ** $p < .01$, *** $p < .001$

() 여아

활동성 수준이 낮을수록 공격, 불안, 위축, 산만 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아와는 달리 남아의 경우 사회성 점수가 낮으면 퇴행행동이 증가하는 반면, 남아와는 달리 여아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부정적일수록 위축행동이, 활동성이 격렬할수록 퇴행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추구성향에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신기하고 강한 감각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공격,

위축, 산만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제에서는 남아와 여아 공통적으로 충동통제 점수는 공격, 불안, 산만행동과, 인지통제 점수는 공격, 산만, 퇴행행동과, 행동통제 점수는 모든 영역의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여아와는 달리 남아에게서만 충동통제 점수는 퇴행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에서는 허용방임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문제행동과 상관이 없었으며, 남아는 온정수

용 점수가 낮을수록 공격, 불안, 위축행동이 증가했으며, 거부제재 점수는 모든 영역의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아와는 달리 여아는 거부제재가 공격행동과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제 변인의 설명력

아동의 성별에 따라 기질,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

나타났다.

문제행동 가운데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아의 기질,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충동통제, 행동통제), 양육행동으로 나타났다. 기질에서 부정적인 정서반응이나 활동성 수준이 높고, 사회성 수준이 낮을수록 공격행동은 증가하였다. 또한 감각추구성향이 강하고, 자아통제에서 충동통제와 행동통제점수가 낮을수록 공격행동은 증가하였다. 양육행동에서는 온정수용점수가 낮고 거부제재와 허용방임 점수가 높을수록 남아의 공격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질(정서성),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충동통제, 행동통제), 양

표 4. 남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문제행동 관련변인의 설명력

변인		문제행동				
		공격	불안	위축	산만	퇴행
		β	β	β	β	β
기질	사회성	-.16*	-.13	-.22**	-.05	-.08
	정서성	-.26***	-.24***	-.13	-.24**	-.05
	활동성	-.22**	-.11	-.19*	-.29**	-.07
감각추구성향		.37***	.17*	.17*	.31**	.03
자아통제	충동통제	-.34***	-.22**	-.10	-.26**	-.19*
	인지통제	-.07	-.03	-.07	-.17*	-.15
	행동통제	-.17*	-.19*	-.10	-.07	-.22**
양육행동	온정수용	-.24*	-.37***	-.13	-.16*	-.03
	거부제재	.19*	.20*	.17*	.20*	.08
	허용방임	.16*	.18*	.11	.08	.10
R^2		.29**	.27**	.14	.22**	.10

* $p < .05$, ** $p < .01$, *** $p < .001$

과 남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은 공격, 불안, 산만행동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각각 29%, 27%, 22%로

육행동으로 나타났다. 기질에서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고, 감각추구성향이 강하고, 충동통제와 행동통제 점수가 낮을수록

표 5. 여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문제행동 관련변인들의 설명력

변인		문제행동				
		공격	불안	위축	산만	퇴행
		β	β	β	β	β
기질	사회성	-.15	-.14	-.20**	-.04	-.04
	정서성	-.32***	-.35***	-.17*	-.21**	-.06
	활동성	-.18*	-.15	-.18*	-.15	-.10
감각추구성향		.30***	.03	.15	.19*	.03
자아통제	충동통제	-.30***	-.12	-.08	-.16	-.20*
	인지통제	-.16*	-.16*	-.08	-.05	-.25**
	행동통제	-.09	-.05	-.15	-.04	-.15
양육행동	온정수용	-.13	-.15	-.11	-.03	-.05
	거부제재	.23**	.10	.16*	.19*	.08
	허용방임	.05	.06	.09	.06	.10
R ²		.24**	.13	.14	.15	.12

* $p < .05$, ** $p < .01$, *** $p < .001$

불안행동은 증가하였다. 또한 양육행동에서 온정수용점수가 낮고 거부제재와 허용방임점수가 높을수록 불안행동은 높게 나타났다. 산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질(정서성, 활동성),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충동통제, 인지통제), 양육행동(온정수용, 거부제재)으로 나타났다. 기질에서 부정적인 정서반응이나 활동성 수준이 높고, 감각추구성향이 강할수록 남아의 산만행동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통제에서 충동통제와 인지통제점수가 낮고, 양육행동에서 온정수용이 낮고 거부제재를 많이 받을수록 산만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제행동 가운데 위축과 퇴행행동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에 대한 결과와는 달리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여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은 공격행동에서만 유의하였으며, 그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여아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아의 기질(정서성, 활동성),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충동통제, 인지통제), 양육행동(거부제재)으로 나타났다. 기질에서 부정적인 정서반응이나 활동성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행동은 증가하였다. 또한 감각추구성향이 강하고, 자아통제에서 충동통제와 인지통제점수가 낮을수록 공격행동은 증가하였다. 양육행동에서는 거부제재점수가 높을수록 여아의 공격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 감각추구성향, 자

아동제력,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기질(정서성),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 어머니의 양육행동(허용방임), 아동의 문제행동(불안, 산만)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에서 여아는 남아에 비해 정서성 점수가 높아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성이나 활동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감각추구성향은 여아에 비해 남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통제력은 남아에 비해 여아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는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아가 감각추구성향은 높는데 반해 자아통제력은 낮은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모험심은 강한데 반해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남아에게는 결과적으로 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 가운데 불안과 산만행동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으며, 불안행동은 여아가, 산만행동은 남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은 공격적인 외부로 향한 방어를 더 잘 사용하는 반면, 여자는 자신을 향한 내부화된 방어를 더 잘 사용한다(Levit, 1991)는 사실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와는 달리 공격행동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교 5-6학년이라는 연구대상의 연령변인이나 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남아에 비해 여아가 빠른 성장을 보여 신체적으로 조숙하며,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도 양성평등적인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공격행동에서 뚜렷한 성

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기질,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 양육행동(온정수용, 거부제재)은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 모두 기질에서의 사회성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 불안, 위축행동은 감소하며, 긍정적 정서반응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 불안, 퇴행행동은 감소하며 활동성 수준이 낮을수록 공격, 불안, 위축, 산만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아동은 보다 적개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Eisenberg et al., 1993)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에 대한 2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Eisenberg 등(1995)은 부정적인 정서성의 표현빈도가 빈번하고 강도가 심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낮고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능력의 부족은 비행또래와의 교제 및 반사회적 행동과 상관이 있으며, 부정적 정서표현으로 공격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Dodge & Garber, 1991). 또한 활동성 수준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감각추구성향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기질은 전반적인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기질에서 사회성은 남아의 퇴행행동과, 정서성은 여아의 위축행동과, 활동성은 여아의 퇴행행동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에서의 성차요인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인 정서성은 불안하고 우울하며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을 의미한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여아는 남아에 비해 불안행동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높은 불안수준이 위축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사회성이나 활동성에서는 유의한 성차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또래수용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예측력있는 변수(김선희, 2000)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능력이 낮고 자아통제 수준이 낮은 남아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퇴행행동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아의 경우에는 활동성이 낮을 뿐 아니라 남아에 비해 외부로 향한 방어보다는 자신을 향한 내부화된 방어를 더 잘 사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퇴행행동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각추구성향은 공격, 위축, 산만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감각추구성향이 신기하고 강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성향이라는 점에서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은 보다 다양하고 모험적인 행동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공격적이고 산만한 행동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축행동은 새로운 활동을 추구하려는 경향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각추구성향은 개인의 인성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보수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감각추구성향은 보다 문제행동과 직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질이 양육행동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듯이 감각추구성향이 모든 문제행동과 직결된 부정적인 변수라기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유도된다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남아가 여아보다 감각추구성향이 높다는 점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결과(오미경, 1998; 정현희와 오미경, 2000)와도 일치하고 있다.

자아통제에서 충동통제는 공격, 불안, 산만행동과, 인지통제는 공격, 산만, 퇴행행동과, 행동

통제는 모든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통제가 모든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바람직한 행동에 참여하며 그렇지 않은 행동은 억제하는 능력”이라는 행동통제의 개념과 문제행동간의 개념적 유사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충동통제는 여아와는 달리 남아의 퇴행행동에서만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남아의 낮은 자아통제 능력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퇴행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충동성이 낮고 신중한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아통제능력은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충동통제력은 선행연구에서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곽금주와 문은영, 1995) 나타났다. 충동적 성향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면 공격행동 등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중재하는 인지적 능력도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이에 대한 선행연구결과(Grych & Fincham, 1993)와도 일치하고 있다.

양육행동 가운데 온정수용과 거부제재는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수용적이지 못하고 거부제재적인 경우 아동은 불안과 같은 내면화된 행동문제와 더불어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 특히 남아의 경우 온정수용은 공격, 불안, 위축행동과 부적 상관이, 거부제재는 모든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었으며, 여아의 경우에는 거부제재와 공격행동만이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거부제재가 여아보다 남아의 문제행동과 보다 상관이 높다는 사실은 남아의 높은 감각추구성향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에서 남아보다 여

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며 이와는 달리 남아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박영애(1995)의 연구에서 여아의 자존감은 아버지의 온정수용과 거부제재의 영향이 큰 반면, 남아의 자존감에는 어머니의 온정수용이 가장 기여도가 컸으며 어머니의 거부제재는 남아의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심희옥, 1997)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해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남아에게서는 공격, 불안, 산만행동에 대해서, 여아의 경우에는 공격행동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축, 퇴행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낮게 나타났다.

먼저 남아의 경우 기질,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모두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강조하던 기존의 접근방법과는 달리 아동의 기질, 감각추구성향이나 자아통제력과 같은 변인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질 가운데 정서성과 활동성, 자아통제의 충동통제, 양육행동에서 온정수용과 거부제재가 문제행동에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서성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부정적 정서성이 높고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아동은 성인으로부터는 물론 또래집단으로부터도 잘 수용되지 못한다는 Eisenberg 등(199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활동성의 영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신기하고 강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남아의 높은

감각추구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충동통제가 높은 영향을 미친 사실은 자기통제력이 뛰어난 아동은 충동적이지 않고 신중하며, 충동에 대한 자기통제력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적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Hinshaw, 1992)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양육행동에서 온정수용과 거부제재의 영향력은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태도가 남아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박영애(19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자존감과 같은 남아의 긍정적인 특성을 높여줌으로써 문제행동의 빈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신체적 공격이나 강제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관철하도록 하며, 그 결과 또래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결과적으로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아와는 달리 여아의 경우에는 문제행동 관련변인들은 공격행동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와 유사하게 기질 가운데 정서성,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 가운데 충동통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아와는 달리 양육행동에서는 거부제재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음은 여러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지만(강차연, 1999), 여아의 경우에는 거부제재만이 영향을 미친 것은 양육태도를 수용하는데 있어서의 성별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거부제재에 대한 민감성이 남아보다 여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영애(1995)의 연구에서도 편애에 대한 민감성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아의 자존감은 온정수용에 의해 영

향을 크게 받지만 편애에는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반면, 여아는 편애에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온정수용이나 거부제재와는 달리 허용방임이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낮게 나타난 점은 허용방임요인의 속성이 온정수용이나 거부제재처럼 뚜렷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격, 산만, 불안행동과는 달리 문제행동 관련 변인들의 영향이 위축과 퇴행행동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자아통제능력이나 감각추구성향과 같은 변인들이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과 특히 관련이 깊다는 연구결과(Hinshaw, 1992)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요시하던 기존의 접근방법과는 달리 아동의 기질,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력과 같은 변인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질이나 감각추구성향, 자아통제력과 같은 변인들도 양육행동과 같은 환경변인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 중재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질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감각추구성향이 높고 자아통제력이 낮은 아동에게 이러한 특성을 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유도해 줄 수 있는 양육행동의 중요성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은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부터 아동의 발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재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전반적인 영향과는 달리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남아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후의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효과도 여아보다는 남

아가 보다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으로 볼 수 있는 반사회적 행동과는 달리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이후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반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예측요인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타고난 특성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양육모델의 제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몇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불일치는 문제행동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아버지의 존재는 부부관계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포함하고 동시에 부모간의 양육에서의 불일치나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횡단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발달단계에 따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며, 아동기의 문제행동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종단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대한 분석에 국한된 것이었다.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후속연구를 통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차연 (1999).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 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금주 · 문은영 (1995). 심리적 특성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II): 청소년 이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1), 1-11.
- 김민희 (1998).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및 만족도에 따른 유아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00).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희 · 김정연 (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 변인과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김정택 (199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련 (1993)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수경 (1993). 유아의 행동과 기질 및 성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 (1997).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 · 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1.
- 오미경 (1997).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주 · 신호식 (1997).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5-26.
- 이경주 · 신호식 (1998) 청소년기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유형과 부적응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6(8), 39-49.
- 이선경 · 이재연 (1998).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아동학회지 19(2), 49-64.
- 이순규 (1994). 자기조절 학습훈련이 아동의 자주적 학습태도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 · 오미경 (2000). 아동의 감각추구성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6), 171-183.
- 최영희 (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향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한세영 (1995).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uss, A.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albaum.
- Caspi, A. & Silva, P. A. (1995). Temperamental qualities at age three predict personality traits in young adulthood: longitudinal evidence from birth cohort. *Child Development* 66, 486-498.
- Derryberry, D., & Rothbart, M. K. (1988). Arousal,

- affect, and attention as components of tempera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58-966.
- Dodge, K. A. & Garber, J. (1991). Domains of emotion regulation. In J. Garber & K. A. Dodge(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 Fabes, R.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 (Ed), *Emotion and social behavior: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9-150. Newbury Park, CA: Sage.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5), 1418-1438.
- Eisenberg, N., Fabes, R. A., Murphy, B., Maszk, P., Smith, M., & Karborn, M. (1995). The role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i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6, 1360-1384.
- Garrison, W., Earls, F.J. & Kindel, D. (1984). Temperament characteristics in the third year of life and behavior adjustment at school entr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3, 298-303.
- Grych, J. H., & Fincham, F. 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Hinshaw, S. P. (1992).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underachieve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usal relationships and underlying mechanism. *Psychological Bulletin*, 111, 127-155.
- Hubert, N.C., Wachs, T.D., Peters-Martin, P. & Gandour, M. J. (1982). The study of early temperament: measurement and conceptual issues. *Child Development* 53, 571-600.
- Hughes, M., Pinkerton, G. & Plewis, I. (1979). Children's difficulties on starting infant schoo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 187-196.
- Jenkins, J.M. & Smith, M.A.(1990). Factors protecting children in disharmonious home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60-69.
- Kauffman, J. M.(1993).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5th ed.). New York: Macmillan.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al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Psychology*, 7(6), 1020-1029.
- Ladd, G. W. & Price, J. M. (1987). Predicting children's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58, 1168-1189.
- Levit, D. B. (1991). Gender differences in ego defenses in adolescence: Sex roles as one way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6), 992-999.
- Martin, R. P., Nagle, R., & Paget, K. (1983). Relationships between temperament and classroom behavior, teacher attitudes,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 377-386.

- Miller, R.G. Palkes, H.S. & Stewart, M. A. (1973). Hyperactive children: suburban elementary school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2, 121-127.
- Rubin, R.R. & Fisher, J. J. (1983). *Your Taddler*. New York: MacMillan.
- Symptoms, temperament, resiliency, and control in anxiety-disordered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22.
- Zuckman, M. (1979). Traits, states, situations and uncertainty. *Journal of Behavioral Assessment* 1, 43-54.
- Zuckerman, M.(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NY: Cambridge Uni. Press.
- Wolfson, J., Fields, J. H., & Rose, S. A. (1987).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behavior problem and related variables

Hyeon-Hee Jeong

**Dept. of Child & Family Environment,
Donggeui University**

Soon-Hwa Chung

**Dept. of Daycare Teacher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behavior problem and related variables according to sex. The subjects were 322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Busan. The questionnaires on children's temperament, sensation seeking, self control, behavior problem, and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 were used.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t-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ccording to sex,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temperament scores(emotionality), sensation seeking scores, self control scores, behavior problem scores(anxiety behavior scores and distracted behavior scores) and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 scores. (2)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scores, sensation seeking scores, self control scores,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 score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scores. (3) Children's temperament, sensation seeking, self control and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explaine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anxiety behavior and distracted behavior for boys, and aggressive behavior for girls. All variables explaine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29%, anxiety behavior 27%, and distracted behavior 22% for boys, and aggressive behavior 24% for girls respectively.

Keywords : temperament, sensation seeking, self control, childrearing behavior, behavior problem